

産團 가동률 두자리수 상승  
제조업 생산지수 감소 둔화

# 지역 경기 生氣?

## ■ '6월 국가산단 동향'

여수산단 가동률 전월대비 13.2%p ↑

광주 첨단·평동공단도 80%대 회복세

산업단지 가동률이 두자리수 상승을 보이고 제조업 생산지수도 감소폭이 둔화되는 등 광주·전남지역에 경기 회복론이 확산되고 있다.

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국 45개 산단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'6월 국가산단단지 산업동향'에 따르면 6월 전국 산단의 가동률은 전월보다 3.1%p 오른 81.9%로, 지난해 10월(82.5%p)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

특히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여수산단의 경우 가동률이 전월 대비 13.2%p 상승해 전국 국가산단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. 정지 설비 보

수를 완료하고 정상 가동이 이뤄진 데다, 경기 불안감도 완화되면서 여수산단의 생산은 전월보다 31.1%, 수출은 20.5%씩 급증했다.

광주 첨단산단도 6월 가동률이 79%로 전월(66.2%)보다 12.8%p 올랐고 평동 외국인산단의 6월 가동률도 81.9%로 전월(74.3%)에 비해 7.6%p 상승했다. 오프와 기아차의 생산 및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동률 상승폭이 컸다는 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측 설명이다.

산단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생산과 수출실적도 늘어나 국가산단 생산은

■ 주요 단지별 생산·수출·가동률 변동내역(전월대비)

단지	여수	남동	반월	시화	구미	창원	울산	온산
생산 증가율(%)	31.1	11.0	4.4	8.2	5.2	13.7	6.7	-1.2
수출 증가율(%)	20.5	1.3	-3.2	4.2	6.6	9.4	29.2	14.7
가동률 상승률(%)	13.2	3.4	4.1	3.6	1.3	4.3	0.6	-0.2

전달보다 9.0% 늘어난 33조9천301억원, 수출은 13.0% 증가한 140억3천100만달러를 기록했다. 고용인력도 77만9천62명으로 전월에 비해 0.1%, 지난해 6월에 비하면 2.7%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지방산단인 광주 하남산단의 공장 가동률도 지난 1분기 68.5%에 비해 4.0%p 상승한 72.5%로 나타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생산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(2조7천860억5천100만원)보다 213억5천만 원이 늘어난 2조8천74억100만원을 기록했다.

제조업 생산도 감소폭이 둔화되는 등 호전되고 있다. 한국은행이 20일 내놓은 '최근의 지방경제 동향'에 따르면 2분기 광주·전남 제조업 생산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5.4% 감소

했다. 그러나 감소폭은 4월(-7.7%)→5월(-6.4%)→6월(-1.9%)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.

하지만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딜 것 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. 경기 회복 조짐을 체감하지 못하는 지방 기업들이 많은데다, 소비 심리가 여전히 침체돼 있고 대기업의 파업까지 겹치는 등 전반적 현상 경기는 아직 '회복'과는 거리가 멀어 '회망 섞인 관측'을 하기에는 성급하다는 것이다.

하남산단관리공단 관계자는 "산단 가동률이 상승하고 생산 실적도 늘어나는 등 제조업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"면서 "그러나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다.

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## 지표 호전됐지만 ... 지방 기업은 '윅윅' 60%가 "경기회복 체감 못한다"

각종 경제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, 지방 기업들은 여전히 경기 회복 조짐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내놓은 '최근 지방경기 및 경영 여건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결과'에 따르면 '경기 회복을 체감하고 있느냐'는 질문에 지방 기업의 60.7%가 "경기 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"고 답했다.

지방 소재 기업 500개사와 수도권 소재 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 기업의 30.7%만 '경기 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'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.

특히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는 지방 경제가 최근의 경기 변동 및 수도권 중심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.

또 가장 위축된 경제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지방과 수도권 기업이 공통적으로 '신규투자(지방 31.9%, 수도

권 48.6%)' 부문을 꼽았지만, 지방 기업들은 신규투자 다음으로 위축된 경제활동 부문을 생산활동(22.4%), 자금시장(15.9%)이라고 응답했다. 반면, 수도권 기업들은 고용부문(17.6%), 생산활동(11.5%)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.

지방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도 수도권 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. 지방 기업의 평균 공장 가동률은 79.7%에 불과한 반면, 수도권 기업의 공장 가동률은 87.3%에 달했다.

하지만 경영 활동 방향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지방 기업 67.2%가 '재무건전성 확보' 등 경영을 안정시키는 전략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.

해외 시장 개척 등 성장 중심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(23.3%)이 낫다는 점은 지역 경제인들이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.

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## 광주신세계 '생일잔치'

개점 14주년 기념 다양한 이벤트 마련

나비 전시관·상무축구단 팬 사인회 등

광주신세계백화점이 개점 14주년을 맞아 '지역문화축제' '광주상무 축구단 팬 사인회'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.

신세계는 30일까지 1층 광장에서 살아있는 나비 전시관, 곤충엑스포 생태·체험관을 열어, 나비·곤충 표본 등을 전시한다.

또 21일 오후 2~5시에는 나비·곤충모양의 헤나 문신 이벤트를, 22~23일에는 즉석사진 촬영 및 인화 서비스를 한다.

23일 낮 12시부터 1층 광장에서 광주상무축구단 팬 사인회가 진행된다. 최성국, 김용대, 김명중 등 선수 5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어린이 동반 가족에 한 해 선수단 사인볼도 증정한다.

축하상품전도 함께 한다. 1층

시즌 이벤트홀에서는 23일까지 '금강·랜드로바 구두, 핸드백 대전'을 진행, 숙녀화(6만5천원), 신사화(7만원), 아동화(3만원), 핸드백(5만원) 등을 판매한다.

또 2층 화장품매장에서는 '대 브랜드 데이'를 열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사은 선물을 증정한다.

'살바토레 페라가모'(1층) '아르마니콜레지오니'(3층) 등 일부 명품관에서도 새단장 오픈을 기념해 오픈축하상품으로 셔츠, 스카프 등을 선보인다.

1만·2만원 균일가전을 비롯해 일부 브랜드에 한 해 10~30% 특별 세일을 한다.

/이은미기자 emlee@kwangju.co.kr

## 수소전지차 여수도심 누빈다

현대기아차 100kW급 투싼 2대 전달

내년 7월까지 시험운행 ... 모니터링도



현대기아차는 20일 여수시와 수소 생산업체인 SPG케미칼에 100kW급 투싼 수소연료전지차 2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. <사진>

현대기아차의 수소연료전지차 전달은 여수에 위치한 SPG케미칼이 이날 하루 4대의 수소연료전지차량에 대한 연료 충전이 가능한 수소스테이션을 준공한데 따라 이뤄진 것으로, 여수시청과 SPG케

미칼은 오는 2010년 7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실시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.

현재 국내의 수소스테이션은 현대기아차의 남양·마복연구소를 비롯해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, 여수 SPG케미칼, 울산 동덕산업가스 등 총 10기에 달한

다.

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발생한 전기를 활용해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, 물 이외에 배출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다.

또 모터로만 구동되는 특성상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없어 안락한 승차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, 에너지 효율도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일대원 현대기아차 연료전지개발실장은 "여수시에 설치된 수소스테이션으로, 전남권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"면서 "향후 연료전지차를 전국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현대기아차는 앞으로 제주도와 서울 양재동에도 수소스테이션을 추가로 설치, 수소전지차의 운행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.

/김지을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## 실적 호전 기업 주가도 '쑥쑥'

매출 증가한 지역 상장사 6곳 평균 103% 올라

광주·전남지역 상장사 가운데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시장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.

20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'광주·전남 12월 결산법인 상반기 실적과 주가동향' 현황에 따르면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주가동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실적 호전 법인이 상대적으로

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.

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6개사의 주가는 평균 103.24% 상승해 분석법인 전체의 평균 주가 상승률(68.30%) 대비 34.94%포인트의 초과 수익률을 보였다.

또 영업이익이 증가한 7개사의 주가는 평균 97.83% 상승해 전체 평균 주가 상승률과 비교해 29.53%포인트 초과 상승률을, 순이익 증가사 7개사

도 평균 99.91% 올라 31.61%포인트의 초과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다.

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, 순이익이 감소한 회사의 평균 주가는 각각 42.09%, 38.77%, 36.69% 상승했지만, 전체 평균 주가 상승률과 비교할 때 각각 -26.21%포인트, -29.53%포인트, -31.61%포인트를 나타냈다.

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김경원 소장은 "실적 호전 법인들의 주가 상승률이 분석 법인 전체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고 순이익의 증감이 주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"고 말했다.

/장필수기자 bungy@kwangju.co.kr

## 예금은행, 건설업 대출 줄였다

4년 6개월만에

올해 상반기 예금은행의 건설업 대출이 4년 6개월 만에 감소했다. 은행들이 금융위기 여파로 대출을 기피했기 때문이다.

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'상반기 중 예금은행의 산업별 대출금 동향'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산업대출

금 잔액은 546조8천861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8조3천492억원(3.5%) 증가했다. 분야별로는 제조업의 대출금이 작년 말에 비해 8조1천985억원(4.4%) 증가했으며 서비스업은 10조6천317억원(4.0%) 늘었다. 이에 반해 건설업은 1조2천34억원(2.3%) 감소했다. 건설업 대출이 감소한 것은 4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. <연필뉴스>

▲ 코스피지수	1,576.39 (+30.43)
▲ 코스닥지수	516.77 (+6.57)
▲ 금리 (국고채 3년)	4.39% (+0.02)
▼ 원·달러 환율	1,246.90원 (-8.90)

※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



### 민주화와 평화를 사랑했던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조선대학교병원 임직원 일동은 그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.



**조선대학교병원** 장례식장

주소: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로 100-1 | 전화: 062-300-3332